3 에조치 시대

에조치의 특산물 컬렉션

큰 바다사자나 곰의 가죽. 결이 매우 아름다운 해달의 가죽. 독수리의 날개나 덩굴. 말린 연어, 해삼이나 전복. 나무껍질로 만든 노끈. 이처럼 아이누 민족이 수렵이나 어로, 채집으로 손에 넣은 것을 가공한 물품들은 와진(일본인) 과의 교역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진으로부터 쌀, 술, 담배, 철제품, 칠기, 무명 등을 손에 넣었습니다. 13～19세기 전반의 "에조치 시대"에는 와진에 의한 아이누 민족에 대한 지배가 강화되어 아이누 민족의 교역 활동의 자유가 차츰 빼앗겨 가는 시기였습니다.

사쓰몬문화가 끝나갈 무렵 홋카이도에 살던 사람들은 혼슈의 사람들 즉 와진(일본인)으로부터 에조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의 아이누 민족에 이어지는 사람들입니다.

13세기 이후에 들어서자 홋카이도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스타일이 크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 수혈 주거에서 평지 주거로의 변화, 차시의 축조, 철제품의 대량 사용, 곰을 위한 제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그때까지의 사쓰몬문화부터 새로운 문화로 바뀌었다는 뜻으로 학문상 "아이누 문화"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누 문화"는 13～19세기 전반에 아이누 민족이 와진이나 사할린 지역의 사람들과 교역을 하며 조금씩 변화를 거듭하면서 형성된 문화입니다.

14～15세기에 들어서면 수많은 배가 일본해(동해)를 왕래하게 되면서 중국의 도자기나 동전이 홋카이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와진도 홋카이도 남부를 잇달아 출입하면서 다테라고하는 구릉 또는 산지를 이용한 소규모 요새와 저택을 겸한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이윽고 아이누 민족의 생활이 위협당하는 경우도 빈번해지면서 15세기 중순부터 16세기 중순까지 다테를 만든 와진과 아이누 민족의 양자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와진 세력은 가키자키 씨가 이끌게 됩니다.

1599(게이초 4) 년, 가키자키 씨는 성을 마쓰마에로 개명하여 1604(게이초 9) 년에는 에도 막부로부터 아이누 민족과 교역할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이윽고 1630년대 경에 아키나이바치교세라고하는 상장지행제를 시행하면서 아이누 민족에게 있어서 불리한 교역이 이루어지자 그 제도에 불만을 제기한 아이누의 사람들에 의해 1669(간분 9) 년에 샤크샤인의 난이라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누 민족은 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 후 마쓰마에번의 지배를 강하게 받게 됩니다. 18세기에 접어들어 바쇼우케오이세라고하는 장소도급제가 에조치에서 시행되면서 아이누 민족은 와진 상인이 경영하는 어장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또한, 18세기 후반에 외국선이 에조치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하자 마쓰마에번과 에도막부는 아이누 민족에 대한 지배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이를 계기로 아이누 민족의 생활이 급속히 변해갔습니다.

아이누 민족과 마쓰마에번

1604(게이초 9) 년, 에도막부로부터 마쓰마에번에게 고쿠인조(黒印状)라는 공문서가 내려지면서 아이누 민족과 와진과의 교역은 크게 변해갑니다. 그때까지는 아이누 민족이 혼슈에도 진출하여 자유롭게 교역을 하고 있었으나 교역을 하기 위해서 차츰 마쓰마에를 찾게 됩니다. 1630년 즈음부터는 마쓰마에번의 부하가 아이누 민족의 마을을 넘나들게 되면서 아이누 민족에게 있어서 불리한 교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금을 목적으로 한 수많은 와진이 진출해오면서 아이누 민족의 생활의 장이 황폐해집니다.

러시아의 진출과 아이누 민족

1789(간세이 원년) 년, 마쓰마에번과 와진 상인들의 간사한 방식에 견딜 수 없게 된 구나시리와 메나시 지역의 아이누 민족이 와진 71명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누 수장들의 설득으로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잡히고 그중 37명이 처형되었습니다. 한편 그 당시 쿠릴 열도에 러시아가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1792(간세이 4) 년에는 러시아선이 에조치에 들어오게 됩니다. 에조치의 변해가는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에도막부는 에조치를 직접 지배하기로 합니다. 그 결과 아이누 민족에 대한 와진의 지배는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